

이제는 바쁜 가을걷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무더운 여름도 끝나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어느덧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음을 알려줍니다. 한여름 땀흘려 가꾸고 키워낸 모든 것들을 갈무리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뉴스에서는 벌써 조생종 벼를 거두는 곳이 있다고도 하는데, 추석 즈음이 되면 황금빛 들녘에서 한농연 회원들의 콤바인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쉽없이 달려온 9개월여의 시간들을 생각해봅니다. 처음 시작 당시의 의욕과는 달리 모자란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농업계에서는 한-미 FTA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다 해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농어업용 면세유 기한을 5년 연장하였으며, 후계농업경영인 3년 자금대출자격제와 자금결제 도입, 기반시설부담금 사후환급을 위한 행정위헌소송 제기 등 한농연 농권운동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등 당면 농정현안에 대한 대응도 보다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12월 대선과 내년 4월 총선 등을 앞둔 시점에서 한농연의 농권운동 앞에는 더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9월 11일 이경해 열사 4주기 추모, 한-미 FTA 저지 농대위 대표자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11월 6일에는 대선후보 초청 농정공약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에야말로 농업과 국민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무분별한 농업 개방을 막아내고, 피폐해진 농업·농촌·농민을 살려내려면 앞으로 5년 동안의 차기 정부를 이끌어 갈 농정 기조를 올바로 세워내야 합니다. 대선 후보의 농업관과 농정대안을 철저히 검증하여, 350만 농민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는 올바른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회원 동지 여러분! 큰 포부를 안고 출발한 2007년이 이제 4개월도 채 안 남았습니다. 가을걷이 해봤자, 농협에 부채 원리금 갚고 나면 남을 것 없는 헛농사라고 좌절하지 마시다. 술한 슬픔과 역경을 딛고 농권운동에 몸을 바치셨던 이경해 열사의 삶을 생각해봅시다. 산악 불모지를 개간하여 서울농장을 일구셨던 이경해 열사의 도전정신과 개혁 의지를 되새기며, 농권운동과 영농의 현장에서 다시금 스스로의 의지를 다져봅시다. 회원 동지 여러분의 모든 일에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